

Safety in **E S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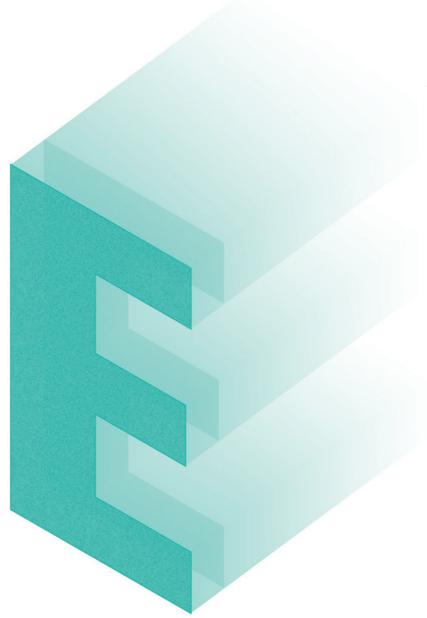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ESG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여전히 높은 산재율과 직장 내 정신적·신체적 위협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보건과 안전은 더 이상 부차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ESG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 박선현 서울대학교 교수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함께 짚어봅니다.



### ESG 경영, 왜 주목받는가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 기업지배구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전방위적 노력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주주의 극대화를 주요 목표로 했던 기업경영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만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사실 기업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지며, 공정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ESG 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분야별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현 상황을 측정하고, 공시하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행동의 자율적, 실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ESG 경영을 도입하는 목적은 기업이 속한 산업과 사회가 당면한 구체적 과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산업화와 환경문제를 오래 겪어온 유럽 기업들은 탄소감축과 같은 환경요소를, 다양한 인종·민족 구성원 통합에 노력해온 미국 기업들은 기업 구성원의 다양성

박선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확대를,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비판받는 신흥국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왔다. 한국 사회와 기업이 먼저 고려해야 하는 ESG 주제는 무엇일까? 나는 단연코 Safety, 곧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라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자신이 속한 산업의 최정상에서 있지만 그 영광의 반대편 그들은 어둡고도 깊다. 우리 기업의 성공은 OECD 최고의 산재 사망, 사고율 국가라는 오명 위에서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과 조선소 도크에서는 오늘도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끼이고, 깔려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판교의 지식 노동자들은 조직 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병원에서는 신입 간호사들이 선배들의 ‘태움’에 정신과를 찾아야 한다.

## ESG는 새로운 투자언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역설적이게도 그 답이 우리 기업이 이루어 낸 과거의 성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학의 관련 연구는 조직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성공경험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비용 효율성 중심의 선진국 따라잡기에서 작업현장 안전장치는 추가비용에 불과하며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동료는 지시와 복종의 대상일 뿐이다. 성공의 기반이 되었던 돌관(돌파관철) 작업과 크런치모드와 일사분란한 군대식 조직은 이제는 덮으로 박혀 우리 기업들의 미래를 향한 도약을 가로막는다. 최소한의 안전, 건강,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품과 공정의 혁신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국 기업들이 열망하는 창조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시스템과 문화를 먼저 갖추는 일이다. 그것이 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준비라는 것에 모두가 합의하는 것이다.

ESG 경영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경영자들이 이에 발맞추어 기업경영의 변화를 꾀하는 일련의 투자 및 경영기법을 일컫는다. 재무제표를 비롯한 단기적, 정량적 재무 정보를 중심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던 과거와 달리,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여 투자 대상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가 투자자들 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ESG 기준이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UN PRI, 2022).





ESG를 구성하는 요소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로, 기업 경영의 책임 범위를 외부 사회와 더 나아가 지구 환경으로 폭넓게 설정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ESG 경영의 주요 방법론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분야별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공시하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행동의 자율적, 실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공시/투자는 ESG 경영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 이는 ESG가 주로 기업 회계, 재무 분야에서 발전했다는 역사적 배경과도 연관이 있으며,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You can't manage what you can't measure)”라는 아이디어와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 산업안전과 보건,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ESG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서도 ESG는 중요한 경영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ESG 성과가 금융 시장에서 중요해질수록, 기업은 성과를 이루고 보상을 얻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이런 전략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개별 사업장의 산업안전과 보건 투자 현황을 구체적 지표로 평가하고, 거래소는 이를 기업 ESG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주요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산업 안전 지표와 공시를 바탕으로 장기적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금융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업금융도 산업안전 및 보건 지표들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SG 경영이 기업생태계 전반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이 Safety in ESG라는 큰 구호 하에 펼쳐진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당연한 명제를 우리가 곧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